

교육학개론

총평

2026년 지방직 9급 교육학개론은 교육학의 전 영역을 고르게 출제하면서도 기본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최신 교육정책 및 교육관계법령에 대한 학습 여부를 동시에 평가한 시험이었다. 전체적으로는 2025년 지방직과 유사한 난이도를 유지하였으나, 단순 암기형 문제의 비중은 다소 줄고 개념 간 비교와 사례 적용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증가하였다.

특히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교육법 영역에서 최근 출제경향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폭력예방법, 평생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최신 법령과 교육정책을 반영한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 출제 비중

영역	문항수	비율
교육철학·교육사	2	10%
교육심리·상담	5	25%
교육방법	3	15%
교육평가	2	10%
교육행정	2	10%
교육사회	3	15%
교육과정	1	5%
교육법	4	20%

- 출제 특징

① 기본이론 중심 출제

대부분의 문항이 교육학의 핵심 이론을 충실히 이해했는지를 평가하였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으며,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반복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수준이었다.

② 교육법 비중 확대

평생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총 4문항이 교육법에서 출제되었다. 최근 교육정책과 법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출제 경향이다.

③ 사례형 문항 증가

인지행동상담과 콜버그 도덕성 발달이론처럼 사례를 제시하고 이론을 적용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단순 암기보다는 개념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④ 최신 교육정책 반영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학교폭력 자체해결 제도 등 최근 교육 현장의 변화와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⑤ 교육사회의 변별력 강화

애플과 볼스·진티스처럼 유사한 갈등이론 학자들의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학자별 핵심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2026년 지방직 9급 교육학개론은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에게는 고득점을 허용하고, 개념 이해가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변별력을 갖춘 '중상 수준의 완성도 높은 시험'이었다. 향후 시험에서도 이러한 출제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출문제 중심의 반복 학습, 교육관계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 정리, 교육사회 및 교육심리 핵심 이론의 비교 학습, 사례형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이 고득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비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인간 본성에 대하여 백지설(tabula rasa)을 주장한 교육사상가는?

- ① 로크(Locke)
- ② 루소(Rousseau)
- ③ 몬테소리(Montessori)
- ④ 페스탈로치(Pestalozzi)

정답: ①

- 출제영역

- 교육철학
- 서양 교육사상
- 경험주의 교육철학(로크)

- 출제난도

하 (☆☆☆)

- 출제의도

- 인간의 본성과 학습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로크의 경험주의 교육사상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교육사상가별 핵심 개념(로크-백지설, 루소-자연주의, 몬테소리-민감기, 페스탈로치-직관교육)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선지해설

① 로크(Locke) ○

-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로크는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백지(tabula rasa) 상태이며, 모든 지식은 감각적 경험과 교육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교육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루소(Rousseau) ×

- 루소는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난다는 성선설적 자연주의를 주장하였다. 『에밀』에서 자연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소극적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백지설과는 관련이 없다.

③ 몬테소리(Montessori) ×

- 몬테소리는 유아가 환경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흡수정신(Absorbent Mind)과 특정 능력이 민감하게 발달하는 민감기(Sensitive Period)를 강조하였다. 백지설을 주장한 교육사상가는 아니다.

④ 페스탈로치(Pestalozzi) ×

- 페스탈로치는 직관교육, 전인교육, 사랑의 교육을 강조한 교육사상가이다. 교육은 머리·가슴·손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백지설과는 관련이 없다.

2. 을사늑약 이전에 설립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배재학당
- ② 오산학교
- ③ 원산학사
- ④ 육영공원

정답: ②

- 출제영역

- 한국교육사
- 개화기 교육
- 근대학교의 설립

- 출제난도

중 (★★☆)

- 출제의도

- 개화기 주요 교육기관의 설립 시기와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을사늑약(1905년)을 기준으로 교육기관의 설립 연도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선지해설

① 배재학당 ○

- 1885년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이다. 을사늑약(1905년)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영어교육과 근대학문을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② 오산학교 × (정답)

- 오산학교는 1907년 남강 이승훈이 평안북도 정주에 설립한 민족사학이다. 을사늑약 이후 국권 회복과 민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을사늑약 이전에 설립된 교육기관이 아니다.

③ 원산학사 ○

- 1883년 원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이다. 신학문과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근대교육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④ 육영공원 ○

- 1886년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관립 근대학교이다.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외국어와 근대 학문을 교육하였으며, 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3. 규준지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검사의 신뢰도를 강조한다.
- ㄴ. 선발적 교육관에 바탕을 둔다.
- ㄷ. 검사점수의 부적편포를 기대한다.
- ㄹ. 평가 결과를 상대적인 서열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①

- 출제영역

- 교육평가

- 규준지향평가(Norm-Referenced Evaluation)

- 준거지향평가와의 비교

- 출제난도

중 (★★☆)

- 출제의도

- 규준지향평가의 목적과 특징을 이해하고, 준거지향평가와 비교하여 핵심 개념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신뢰도·선발 기능·점수분포·평가기준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묻는 대표적인 비교형 문항이다.

- 선지해설

ㄱ. 검사의 신뢰도를 강조한다. ○

- 규준지향평가는 학습자의 상대적 위치와 서열을 정확하게 변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검사 결과의 신뢰도(일관성)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ㄴ. 선발적 교육관에 바탕을 둔다. ○

- 규준지향평가는 학생들을 선발·분류·배치하기 위한 평가로 활용되며, 상대평가를 통해 개인 간의 성취 수준을 비교하는 선발적 교육관에 기초한다.

ㄷ. 검사점수의 부적편포를 기대한다. ×

- 규준지향평가는 학습자의 능력을 변별하기 위해 정규분포(종형분포)에 가까운 점수분포를 기대한다. 부적편포는 대부분의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 나타나는 분포로, 일반적으로 준거지향평가에서 목표 달성이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다.

ㄹ. 평가 결과를 상대적인 서열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

- 평가 결과를 상대적인 서열과 관계없이 판단하는 것은 준거지향평가의 특징이다. 규준지향평가는 집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와 서열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교예산 편성 기법은?

○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업과 활동을 새롭게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임

○ 교직원의 적극적 학교경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비용 및 인원 절감에 실패할 수 있음

① 기획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③ 영기준 예산제도

④ 품목별 예산제도

정답: ③

- 출제영역

- 교육행정
- 교육재정
- 학교예산 편성 기법

- 출제난도

하 (★☆☆)

- 출제의도

- 학교예산 편성 기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영기준예산제도(ZBB)와 품목별예산제도(LIBS), 성과주의예산제도

(PBS), **기획예산제도(PPBS)**를 비교·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영기준예산제도의 핵심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대표적인 기출 유형이다.

- 선지해설

① 기획예산제도(PPBS) ×

• 기획예산제도는 계획(Planning)·사업(Programmming)·예산(Budgeting)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예산제도이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비용·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며, 전년도 예산을 전면 부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 ×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결과를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영(Zero)'에서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은 아니다.

③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

• 영기준 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을 매년 처음부터(Zero Base) 재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평가한 후 예산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예산 절감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유리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의사결정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④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 ×

• 품목별 예산제도는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통제하는 가장 전통적인 예산제도이다. 예산 집행의 통제에는 유리하지만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동기 이론은?

○ 인간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를 갖고 있다.

○ 내재동기와 외재동기의 이분법적 개념화에서 벗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율성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동기 유형을 제시한다.

① 귀인 이론

② 기대-가치 이론

③ 성취목표지향성 이론

④ 자기결정성 이론

정답: ④

- 출제영역

- 교육심리
- 학습동기 이론
-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 출제난도

하 (★☆☆)

- 출제의도

- 데시(Deci)와 라이언(Ryan)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핵심 개념인 기본심리욕구(자율성·유능성·관계성)와 동기의 자율성 연속체를 이

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빈출되는 대표적인 동기이론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지해설

① 귀인 이론 ×

• 와이너(Weiner)의 귀인이론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원인소재(내적·외적), 안정성, 통제가능성의 세 차원으로 설명하는 동기이론이다. 기본심리욕구나 자율성의 정도에 따른 동기 유형과는 관련이 없다.

② 기대-가치 이론 ×

• 기대-가치 이론은 학습자의 성공에 대한 기대(expectancy)와 과제의 가치(value)가 학습동기를 결정한다고 본다. 대표 학자로는 애킨슨(Atkinson), 에클스(Eccles) 등이 있으며, 자기결정성 이론과는 구별된다.

③ 성취목표지향성 이론 ×

• 성취목표지향성 이론은 학습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숙달 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과제회피목표 등으로 구분하여 학습행동을 설명한다. 기본심리욕구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다.

④ 자기결정성 이론 ○

• 데시와 라이언은 인간이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라는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수록 자기결정성이 높아지고 내재적 동기가 촉진된다고 보았다. 또한 외재적 동기도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외적 조절, 내사 조절, 동일시 조절, 통합 조절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

6.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미 있는 학습은 실제적 과제를 해결할 때 일어난다.

② 사회적 상호작용은 지식 구성의 토대가 되고 학습을 촉진한다.

③ 학습자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받기보다는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낸다.

④ 새로운 학습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독립적으로 처리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④

- 출제영역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구성주의 학습이론
-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

- 출제난도

하 (★☆☆)

- 출제의도

-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핵심 원리인 지식의 능동적 구성, 사회적 상호작용, 실제적 맥락에서의 학습, 선행지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전통적 객관주의 학습관과 구성주의 학습관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선지해설

- ① 의미 있는 학습은 실제적 과제를 해결할 때 일어난다. ○
- 구성주의는 학습이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실재성(authenticity)을 강조한다.
- ② 사회적 상호작용은 지식 구성의 토대가 되고 학습을 촉진한다. ○
- 사회적 구성주의를 대표하는 비고츠키(Vygotsky)는 학습이 교사나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협동학습, 토론, 공동 문제해결 등이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다.
- ③ 학습자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받기보다는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낸다. ○
-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구성한다고 본다. 따라서 학습자는 지식 구성의 주체이다.
- ④ 새로운 학습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독립적으로 처리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 (정답)
- 구성주의는 새로운 지식이 기존의 선행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재구성될 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새로운 학습은 기존 지식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식과의 연결 및 통합을 통해 의미 있게 형성된다.
7. 문화자본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한 학자는?
- ① 뒤르켐(Durkheim) ② 드리븐(Dreeben)
③ 부르디외(Bourdieu) ④ 블룸(Bloom)

정답: ③

- 출제영역

- 교육사회학
- 문화재생산이론
-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

- 출제난도

하 (★☆☆)

- 출제의도

-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을 중심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문화적 불평등의 재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또한 교육사회학 주요 학자(뒤르켐, 드리븐, 부르디외)와 교육평가 학자(블룸)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선지해설

① 뒤르켐(Durkheim) ×

- 뒤르켐은 구조기능주의 교육사회학의 대표 학자로, 교육은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전수하여 사회통합과 사회화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문화자본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아니다.

② 드리븐(Dreeben) ×

- 드리븐은 학교가 독립성, 성취성, 보편성, 특정성 등의

사회규범을 학습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학교의 사회화 기능을 강조한 기능주의 학자로, 문화자본론과는 관련이 없다.

③ 부르디외(Bourdieu) ○

- 부르디외는 학생의 학업성취가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습득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학교는 지배계층의 문화를 정당한 문화로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사회계층과 교육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보았다. 대표 개념으로 문화자본, 아비투스(habitus), 재생산이론이 있다.

④ 블룸(Bloom) ×

- 블룸은 교육목표분류학, 완전학습모형, 2σ(시그마) 효과등을 제시한 교육심리·교육평가 학자이다. 문화자본과 교육 불평등을 설명한 학자가 아니다.

8. 2022년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동체 역량

② 심미적 감성 역량

③ 인공지능 활용 역량

④ 자기관리 역량

정답: ③

- 출제영역

-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
- 핵심역량

- 출제난도

하 (★☆☆)

- 출제의도

-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6대 핵심역량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최근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과정·교육법 연계 문항이다.

- 선지해설

① 공동체 역량 ○

- 공동체 역량은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에 해당한다.

② 심미적 감성 역량 ○

- 심미적 감성 역량은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감수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핵심역량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인공지능 활용 역량 × (정답)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소양을 강조하고 AI 교육을 확대하였지만, '인공지능 활용 역량'은 핵심역량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AI 활용은 교육 내용과 디지털 소양의 일부로 반영되어 있을 뿐, 6대 핵심역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자기관리 역량 ○

- 자기관리 역량은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

하고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기주도적 학습과 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핵심역량이다.

9. 문제기반학습(PBL: Problem-Based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화된 문제를 활용하여 문제해결력을 기른다.
- ② 활동의 안내자이자 촉진자로서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 ③ 학습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원리를 강조한다.
- ④ 학습자 간 협력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을 중요시한다.

정답: ①

- 출제영역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문제기반학습(PBL)
- 구성주의 교수·학습모형

- 출제난도

중 (★★☆)

- 출제의도

- 구성주의 교수·학습방법인 문제기반학습(PBL)의 핵심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PBL과 전통적 문제해결학습의 차이점인 비구조화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의 활용 여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선지해설

- ① 구조화된 문제를 활용하여 문제해결력을 기른다. × (정답)
- PBL은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구조화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해결방안을 탐색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따라서 구조화된 문제를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활동의 안내자이자 촉진자로서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
- PBL에서 교수자는 지식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촉진자(facilitator) 또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습자의 탐구와 토론을 지원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 ③ 학습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원리를 강조한다. ○
- PBL은 학습자가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을 핵심 원리로 한다.
- ④ 학습자 간 협력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을 중요시한다. ○
- PBL은 소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습자 간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10.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상담 접근법은?

한 내담자가 “나는 가정환경 때문에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 상담자는 이러한 사고가 비합리적임을 지적하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바꾸도록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내담자는 자신의 사고방식이 문제의 원인이었음을 인식하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 ① 인간중심 상담 ② 인지행동 상담
- ③ 정신분석 상담 ④ 행동주의 상담

정답: ②

- 출제영역

- 교육심리 및 상담
- 상담이론
- 인지행동 상담(REBT, 인지치료)

- 출제난도

하 (☆☆☆)

- 기본적인 상담이론의 특징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사례 속 핵심 단서를 파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 사례분석

- 이 사례의 핵심은 내담자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다.
- 내담자는 자신의 실패 원인을 “가정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책임을 외부 환경으로 돌리고 있다. 상담자는 이러한 생각이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임을 알려주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상담하였다. 그 결과 내담자는 자신의 사고방식이 문제의 원인임을 깨닫고 행동까지 변화하게 되었다.
- 즉, 잘못된 사고(인지)를 수정하여 정서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상담이라는 점에서 인지행동 상담에 해당한다.

- 선지해설

① 인간중심 상담 ×

- 인간중심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직접 지적하거나 사고를 수정하지 않는다. 상담자는 공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진실성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비합리적 사고를 논리적으로 교정하는 사례와는 다르다.

② 인지행동 상담 ○ (정답)

- 인지행동 상담은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상담이다. 사례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잘못된 사고를 수정하도록 돕고, 이후 행동까지 변화한 것은 인지행동 상담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③ 정신분석 상담 ×

- 정신분석 상담은 현재의 문제를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무의식적 갈등에서 찾는다. 자유연상, 꿈 분석, 전이 등을 통해 무의식을 탐색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재의 비합리적 사고를 직접 수정하는 상담은 아니다.

④ 행동주의 상담 ×

- 행동주의 상담은 잘못된 행동을 강화나 소거 등의 학습

원리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상담이다. 행동 변화 자체를 중시하며, 사고방식을 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지 않는다.

11. 「평생교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한다.
- ③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④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답: ②

- 출제영역

- 교육법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이용권

- 출제난도

중 (★★☆)

- 최근 교육학 시험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교육관계법규를 묻는 문제이다. 법 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법령형 문항이다.

- 출제의도

- 「평생교육법」의 기본 원칙과 평생교육기관의 범위, 평생교육이용권의 개념, 평생교육과정 운영 원칙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특히 평생교육기관에 포함되는 기관과 제외되는 기관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다.

- 선지해설

-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한다. ×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학원으로,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평생교육기관과 일반 학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 켈러(Keller)의 ARCS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습동기 설계 전략을 제시한다.
- ②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성공기회를 제시한다.
- ③ 관련성의 하위 전략으로 친밀성, 목적지향성, 필요나 동기와의 부합성을 제시한다.
- ④ 주의집중의 하위 전략으로 지각적 주의환기, 탐구적 주의환기, 다양성을 제시한다.

정답: ②

- 출제영역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동기유발 이론
- 켈러(Keller)의 ARCS 동기설계모형

- 출제난도

중 (★★☆)

- ARCS 모형의 4가지 요소와 각 하위 전략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성공기회'는 자신감(Confidence) 전략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응용형 문항이다.

- 출제의도

- 켈러(Keller)의 ARCS 동기설계모형의 구성요소(A-R-C-S)와 각 요소별 하위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특히 자신감(Confidence)과 만족감(Satisfaction)의 전략을 혼동하는 수험생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선지해설

②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성공기회를 제시한다. ×

성공기회 제공은 '자신감(Confidence)' 전략에 해당한다.

자신감은 학습자가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도록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와 성공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만족감(Satisfaction)은

- 내적 강화
- 외적 보상
- 공정성 유지

등을 통해 학습 후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전략이다.

13.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타당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타당한지 평가하기 위해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와 입학 후 대학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함

- ① 공인타당도
- ② 구인타당도
- ③ 내용타당도
- ④ 예측타당도

정답: ④

- 출제영역

- 교육평가
- 타당도
- 준거관련타당도(예측타당도)

- 출제난도

하 (★☆☆)

- 교육평가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타당도의 종류를 묻는 기본 문항이다. 사례 속 시간적 관계를 이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출제의도

- 평가도구의 타당도 가운데 예측타당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공인타당도,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특히 현재 실시한 검사 결과가 미래의 수행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판단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사례분석

이 사례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이용하여 입학 후 대학 성적을 예측하고 있다.

즉,

- 현재 실시한 검사 → 수능
- 미래의 준거 → 대학 성적

두 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수능이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검사 결과로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는 타당도를 예측타당도라고 한다.

핵심 단서는 '입학 후 대학 성적', 즉 미래의 성과를 예측한다는 점이다.

- 선지해설

① 공인타당도 ×

-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는 새로 개발한 검사의 결과를 현재 이미 인정받고 있는 검사나 현재의 수행 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 즉, 현재 검사 ↔ 현재 준거를 비교하는 타당도이다.

② 구인타당도 ×

-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검사가 지능, 창의성, 학업동기와 같은 추상적인 심리적 특성(구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를 나타낸다.

-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내용타당도 ×

-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는 검사의 문항이 교육목표나 교육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대표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 주로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확인하며, 점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타당도가 아니다.

④ 예측타당도 ○ (정답)

-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는 현재 실시한 검사 결과가 미래의 성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나타내는 타당도이다.

- 수능 점수와 대학 성적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예측타당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4.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엘더퍼(Alderfer)는 보수나 근무조건이 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맥그리거(McGregor)는 인간을 자아실현적인 존재로 보는 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의 자율적 동기와 잠재력 계발을 강조하였다.

(가) (나)

- ① 생존 욕구 X 이론
- ② 생존 욕구 Y 이론
- ③ 성장 욕구 X 이론
- ④ 성장 욕구 Y 이론

정답: ②

- 출제영역

- 교육행정
- 동기이론
- 엘더퍼(ERG 이론)
- 맥그리거(X·Y 이론)

- 출제난도

중 (★★☆)

- 두 가지 조직이론을 함께 묻는 복합형 문제이다. ERG 이론과 X·Y 이론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 출제의도

- 엘더퍼의 ERG 이론과 맥그리거의 X·Y 이론을 비교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특히 생존욕구(Existence)와 성장욕구(Growth)를 구별하고, Y이론이 자율성과 자아실현을 강조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사례분석

- 이 문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조직이론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 첫 번째 문장에서 '보수'와 '근무조건'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의미한다. 엘더퍼는 이를 생존욕구(Existence Needs)라고 설명하였다.
-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자아실현적인 존재', '자율적 동기', '잠재력 계발'이라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인간은 스스로 일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책임을 수용하고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보는 맥그리거의 Y이론의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가) = 생존욕구

(나) = Y이론

이 되어 정답은 ②번이다.

15. 애플(Apple)의 교육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사의 탈숙련화(deskilling) 현상을 비판하였다.
- ② 학교의 교육과정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학교에서 수학, 과학 같은 기술적 지식이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을 비판하였다.
- ④ 학교제도와 교육과정에 대한 경직된 재생산 이론을 극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답: ②

- 출제영역

- 교육사회학
- 신교육사회학
- 애플(Michael Apple)의 교육이론

- 출제난도

중 (★★☆)

- 애플의 비판적 교육이론을 이해하고, 문화재생산이론 및 신교육사회학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출제의도

- 애플의 교육이론에서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정치성, 교사의 탈숙련화, 기술적 지식에 대한 비판, 재생산이론의 한계 극복 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특히 교육과정을 중립적·객관적인 것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과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애플의 관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선지해설
- ① 교사의 탈숙련화(deskilling) 현상을 비판하였다. ○
- 애플은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수업으로 인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약화되는 탈숙련화(deskilling) 현상을 비판하였다. 그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단순히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문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학교의 교육과정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
- 애플은 교육과정이 결코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교육과정에는 특정 계층의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으며, 학교는 이를 통해 기존 사회질서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학교에서 수학, 과학 같은 기술적 지식이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을 비판하였다. ○
- 애플은 학교가 수학, 과학 등 기술적 지식(technical knowledge)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비판적 사고나 민주적 가치 교육을 소홀히 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그는 어떤 지식이 공식 교육과정으로 채택되는지도 권력관계의 결과라고 보았다.
- ④ 학교제도와 교육과정에 대한 경직된 재생산 이론을 극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
- 애플은 학교가 사회를 단순히 재생산한다고 보는 기계적 재생산이론을 비판하였다. 그는 학교와 교사에게도 저항과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며, 교육을 통해 사회를 비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6.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근거할 때,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영: 법은 사회 질서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원: 법은 중요하지만,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바뀔 수 있다.

- ① 수영은 3단계, 정원은 4단계에 해당한다.
- ② 수영과 정원은 모두 후인습 수준에 해당한다.
- ③ 정원이 수영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해당한다.
- ④ 수영과 정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착한 소년, 착한 소녀 지향'의 단계에 해당한다.

정답: ③

- 출제영역

- 교육심리
- 도덕성 발달이론
- 콜버그(Kohlberg)

- 출제난도

- 중상 (★★★)
- 도덕성 발달 단계를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는 응용형 문제이다. 특히 4단계와 5단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 출제의도

- 콜버그의 6단계 도덕성 발달이론 가운데 법과 질서 지향(4단계)과 사회계약 지향(5단계)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특히 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과, 법보다 인간의 권리와 정의를 우선하는 관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선지해설
- ① 수영은 3단계, 정원은 4단계에 해당한다. ×
- 수영은 제4단계(법과 질서 지향)에 해당하며, 정원은 제5단계(사회계약 지향)에 해당한다.
- 두 사람 모두 한 단계씩 낮게 제시하여 틀린 설명이다.
- ② 수영과 정원은 모두 후인습 수준에 해당한다. ×
- 수영은 인습 수준(제4단계)에 속한다.
- 후인습 수준은 제5·6단계이므로 정원만 후인습 수준에 해당한다.
- ③ 정원이 수영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해당한다. ○ (정답)
- 수영은 법과 질서 지향(4단계),
- 정원은 사회계약 지향(5단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정원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있다.
- ④ 수영과 정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착한 소년, 착한 소녀 지향'의 단계에 해당한다. ×
- 착한 소년·착한 소녀 지향은 제3단계이다.
- 사례 속 수영은 제4단계,
- 정원은 제5단계에 해당하므로 제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다.

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 ③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교육감후보자가 될 수 없다.
- ④ 시·도의회 의결에 대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교육감은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①

- 출제영역

- 교육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 출제난도

- 중상 (★★★)
- 교육감의 임기, 피선거권, 부교육감 임명, 재의요구 등 법 조문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법령형 문제이다.

- 출제의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의 임기와 연임 제한, 후보자 자격, 부교육감 임명 절차, 재의요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특히 부교육감의 임명권자를 혼동하는 수험생이 많다는 점을 활용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선지해설

- ①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 (정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 추천 : 교육감
- 임명 : 대통령

이므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

-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는 횟수는 3기로 제한된다.
- 현행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③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교육감후보자가 될 수 없다. ○

-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위이므로,
-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기준 최근 1년간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정당과의 정치적 연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 ④ 시·도의회 의결에 대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교육감은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 교육부장관이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하면,
- 교육감은 해당 안건에 대해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이는 지방교육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18. 「초·중등교육법」상 공립 초·중등학교의 학교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주체이다.
 ② 시·도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교 예산을 확정한다.
 ③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학교회계 세입에 포함된다.
 ④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정답: ②

- 출제영역

- 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학교회계
- 출제난도
- 중상 (★★★)

-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심의·확정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법령형 문제이다. 최근 교육학에서 학교회계 관련 규정의 출제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 출제의도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회계의 운영 원칙과 예산 편성·심의·확정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혼동하는 수험생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선지해설

-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주체이다.

○

- 학교회계의 예산안은 학교장이 편성한다.

- 학교장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작성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② 시·도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교 예산을 확정한다. × (정답)

- 학교회계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즉,

- 예산안 편성 : 학교장
-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 확정 : 학교장

이 올바른 절차이다.

- ③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학교회계 세입에 포함된다. ○

- 학교발전기금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된 금액은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처리된다.
-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재원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 ④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

-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다.

19. 볼스와 진티스(Bowles & Gintis)의 교육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 교육과정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② 마르크스 관점에서 교육을 연구하였다.
 ③ 경제적 재생산 관점에서 교육을 분석하였다.
 ④ 학교교육의 기능을 상응원리(correspondence principle)로 설명하였다.

정답: ①

- 출제영역

- 교육사회학
- 갈등이론
- 경제적 재생산이론
- 볼스와 진티스(Bowles & Gintis)
- 출제난도
- 중상 (★★★)

- 갈등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이론을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볼스와 진티스, 번스타인, 부르디외, 영, 애플의 이론을 구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응용형 문항이다.

- 출제의도

- 볼스와 진티스의 경제적 재생산이론과 상응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또한 영(M. F. D. Young)의 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이 아닌 'Young의 교육과정 논의', 애플의 공식식식론 등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선지해설

- ① 영 교육과정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 (정답)
-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은 아이즈너(Eisner)가 제시한 개념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 역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영(Young)은 신교육사회학에서 교육과정과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연구하였다.
 - 반면 볼스와 진티스는 경제적 재생산과 상응원리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설명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학교폭력의 정의에는 명예훼손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률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학교폭력 중 "따돌림"이란 학교 내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④ 법률상 기준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답: ④

- 출제영역

- 교육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의 정의 및 학교장의 자체해결

- 출제난도

• 중상 (★★★)

-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법령형 문제이다. 학교폭력의 정의, 가해학생 조치, 자체해결 요건 등 세부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 출제의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따돌림의 개념,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특히 2019년 이후 개정된 학교장의 자체해결 제도를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선지해설

- ① 학교폭력의 정의에는 명예훼손이 포함되지 않는다. ×
- 이 선지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축소하여 설명한 오답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언어적 폭력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과 모욕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 역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 즉, 명예훼손이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률 내용과 다르다.
- ②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률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이 선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를 잘못 설명한 오답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정도와 사안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사과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 중 하나이다. 이 밖에도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면사과가 법률상 조치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③ 학교폭력 중 '따돌림'이란 학교 내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 이 선지는 따돌림의 발생 장소를 잘못 제한한 오답이다. 법률에서는 따돌림을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선지에서는 '학교 내에서'라고 한정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에 법률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④ 법률상 기준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 이 선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